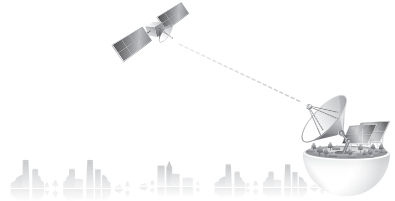


양계안테나



김동진 편집장



**협회 중심으로 단합을 이끌어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양계협회로 다시 태어나자**

최근 양계협회를 중심으로 단합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산란계 대규모 사육업자들을 중심으로 모임체가 결성되고 있으며, 종계부화업계도 종계부화협회 조직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모임체들이 분리되었다 다시 합쳐지는 것을 반복해 왔다. 57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양계협회도 예외는 아니다.

1962년 양계협회의 전신인 한국가금협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양계협회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어 64, 65년에는 한국부화협회와 초생추감별협회가 활동하면서 산업을 이끌어갔다. 당시 한국가금협회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검정사업을 시작하였고, 각종 강습회를 주관하는가 하면 1969년 11월 월간양계(본지)를 창간하면서 만형 노릇을 톡톡히 해 냈다. 서로 각자의 길을 채택했던 업계가 1973년 (사)대한양계협회로 통합되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양계협회는 시세엽서(1979) 및 양계속보(1987)를 발행하면서 양계인들에게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제1회 한국양계박람회(1991) 개최를 통해 국내외 기술을 농가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이 밖에 종계DB사업, 양계의무자조금사업, 계열화사업법 제정 등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1976년에는 한국가금처리협회가 발족한 이후 1980년대까지는 조직적인 변화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양계협회를 중심으로 산업이 전개되었다. 1990년대 이후 계열화사업이 시작되고 자동화, 규모화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1990년 한국부화협회가 양계협회로부터 분리되었고, 가금처리협회가 부활되면서 현재 육계협회로 이름을 바꾼 한국계육산업협회(계육협회)가 설립되었다. 당시 설립되었던 한국부화협회는 6년뒤 운영의 어려움으로 설립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2000년에는 한국토종닭협회가 사단법인 인가를 받으며 협회에서 분리되는 등 산업의 변화에 따른 분업화가 진행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이어 최근 산란계와 종계부화업계가 분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분리하기 위해서는 목적과 방향성, 예산, 실행 가능성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너도나도 사단법인을 만드는게 유행처럼 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여건만 갖추면 인가를 내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단체들이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

양계협회는 지금까지 양계업계를 위해 충분한 기능과 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양계현실 속에 단순한 이론싸움이 아닌 단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번 사태를 통해 양계협회가 회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종계 MG 예방백신 접종금지 유예 백신 지원은 종전처럼 지속되어야

5월부터 금지키로 했던 종계 MG예방백신 접종금지 조치가 유예되면서 종전처럼 백신접종이 허용되었다. 대신 지난해까지 지원되던 MG백신은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16, 36, 56주령에 계사별 정기검진을 실시키로 했던 것도 백신을 허용한 상태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예방접종(주로 5주령 실시) 계군의 항체가 더 이상 검출되지 않는 시기인 56주령에 검사를 실시하고 감염계군에 대해서는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 요령에 따라 종계로써의 사용을 금지하고 자율 도태를 유도키로 하였다.

2016년 개정된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 요령에 의해 마이코플라즈마병도 관리대상 난계대 질병에 포함되면서 유예기간 3년이 지난 금년 5월에 시행할 예정이었다. 주 내용은 예방접종을 금지하고 종계 정기검사 및 도태를 유도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본회와 현장수의사들은 이에 대해 정부에 강력히 요청을 하여 예방접종금지가 시기상조이며, 감염상황을 재조사한 후 접종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청하였고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종계장 374개소를 대상으로 일체조사에 들어갔다. 조사결과 MG감염율이 25.3%까지 나타나면서 과거와 큰 차이가 없어 예방접종 금지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하지만 종계인들은 그동안 지원되던 백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줘야 MG청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백신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접종율이 낮아져 지금보다 더 감염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MG 청정화를 위해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양계**